

| | |
|--------------------|---|
| 저자 (Authors) | 林玲愛, 문명대 |
| 출처 (Source) | 미술사학 , (11), 1997.10, 45-66 (22 pages) Art History , (11), 1997.10, 45-66 (22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미술사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rt History Education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58246 |
| APA Style | 林玲愛, 문명대 (1997). 西域彫刻을 통해 본 東西美術交流. 미술사학, (11), 45-66.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6:15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西域彫刻을 통해 본 東西美術交流*

林 玲 愛**

I. 머 리 말

동·서양 간에는 여러종류의 문화교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양 문화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불교의 東傳이다. 또한 불교는 표현과 전달의 수단으로 조각이라는 조형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조각양식의 변화과정을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이들 불교조각의 전달은 거의 대부분이 ‘구법승’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불교가 처음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부터 대략 3세기 전반까지는 주로 서역의 승려들이 중국으로 향했고, 그 이후부터는 중국승려들이 서역 및 인도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는 여러가지 교통로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길은 역시 타클라마칸이라는 대사막을 통과하는 ‘오아시스路’ 즉 흔히 말하는 서역땅을 지나는 길이였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이곳 서역의 각 오아시스도시들에 남겨져 있는 불교조각들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의 미술교섭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로 언급되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곳 서역지방이 단지 서쪽의 조각양식을 동쪽으로 혹은 동쪽의 조각양식을 서쪽으로 옮겨주는 전달의 역할만을 하였는지, 아니면 서역지방만의 독자적인 미술의 특징을 가졌는지, 가졌다면 그 특수성은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떤 미술양식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되었는지,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5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연수과정 연수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위원 및 서울대, 이화여대 강사.

세기 북위조각을 단순히 ‘서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징지워 왔지만, 과연 이 때 ‘서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역조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글은 동서미술교류 상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서역의 조각을 통해 동서미술교류의 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앞서 제시한 몇가지 문제들에 관한 좀 더 분명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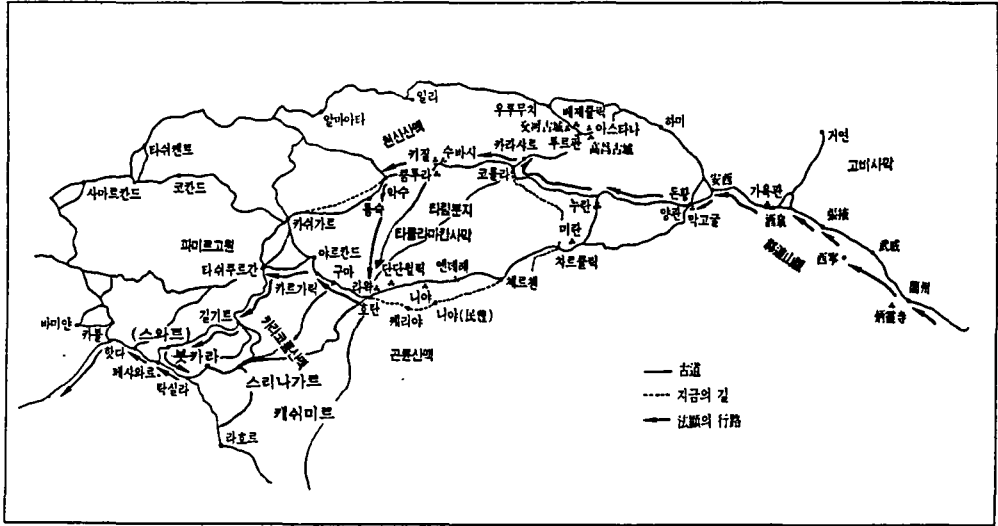
물론 이 때 동·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불교조각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이 글에서의 ‘西’는 간다라미술을 포함한 서북인도의 미술로, ‘東’은 중국으로 한정지어 서술하겠다. 그 시기는 서역조각의 경우 그 특수성이 형성되었고 또 잘 드러나는 시기인 4~5세기를 중심으로, 중국조각의 경우는 4세기 중국조각은 논외로 하고 서역과의 영향관계가 가장 두드러지는 5세기부터 중국 불상복제가 漢式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6세기 초 이전으로 제한한다. 이처럼 시기를 한정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서역조각에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조각이 단 1점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간다라의 조각들 역시 비슷한 형편이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다. 특히 서역조각의 경우 연대 판정에 신중을 요하는데, 따라서 가능한 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대강의 제작 연대가 드러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II. 5세기 以前 西域의 對外關係

1. 西北印度와 西域과의 관계

서역의 여러 오아시스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은 서역남로의 호탄(Khotan, 于闐)으로, 그 시기에 관해서는 異論이 많지만 대략 기원전 후 혹은 늦어도 기원후 1세기 이전¹⁾으로 짐작된다. 이곳 서역남로는 서역북로와 달리 서북인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교유입시기부터 시작하여 그 전개과정에서 서북인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 李吟屏(1991), 『佛國于闐』, 新疆人民出版社, pp. 48~55.



(지도)

특히 이곳 서역남로에서 서북인도로 가는 길은 비교적 많은 통로가 개발되어 있어 최소한 7~8가지 이상의 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지도 참조).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출발한 구법승들이 가장 빈번하게 오갔던 길은 서역남로의 야르칸드(Yarkand 莎車) 혹은 피산(Pishan 皮山)에서 서남쪽으로 타쉬쿠르간을 지나 파미르고원을 넘어 길기트, 다렐, 스와트를 지나 페사와르에 이르는 길이다.²⁾ 이 길은 특히 法顯(393년 출발)과 智猛(404년 출발) 이래 구법승들이 빈번하게 이용하였던 길 중 하나이다. 이 밖에도 호탄에서 바로 남하하여 캐쉬미르(Kashmir)로, 이곳에서 다시 西進하여 간다라로 가는 길은 앞의 길보다 물의 부족하여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서역남로에서 서북인도로 가는 첩경이다. 특히 이 길은 법현 일행 중 僧韶가 혼자 이 길로 갔다는 기록이 있고,³⁾ 또 444년(太平眞君5年) 吐谷渾의 수령인 慕利延도 호탄에서 이 길을 따라 캐쉬미르로 가고 있다. 이 사건은 북위 태무제가 토욕혼을 토벌하자 우두머리인 모리연이 무리를 이끌고 대사막을 넘어 호탄으로 도망하여 호탄에서 약탈을 일삼은 후, 다시 남하하여 캐쉬미르로 간 것이 그 전모인데,⁴⁾ 이처럼 서역남로에서 서북인도로 이르는

2) 殷晴(1990), 「古代新疆的南北交通及經濟文化交流」, 『新疆文物』 1990~4, pp. 115~122 ; 陳戈(1990), 「新疆古代交通路線綜述」, 『新疆文物』 1990~3, pp. 78~79.

3) 『法顯傳』 “... 既過四月行像 僧韶一人 隨胡道人 向罽賓 法顯等進向子合國 ...”

4) 북위 태무제가 서쪽으로 파병하여 吐谷渾의 수령인 慕利延을 토벌하였다. 이 때 모리연은 스스로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이 길들을 통한 서로간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 서북인도와 서역남로의 관계, 특히 정치 및 불교적인 면에서의 관계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문헌사료는 남겨져 있지 않다. 하지만 4세기 이전 쿠산왕조와 서역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분명히 관련이 있었다. 이를 입증해주는 출토사료는 지금까지 서역남로의 유적지에서 1000매 이상 발견된 카로슈티(Kharoṣṭhi)문서이다.⁵⁾ 이 카로슈티문서에 언급된 5명의 선선왕의 칭호가 쿠산왕의 칭호와 유사하다는 점⁶⁾도 쿠산왕조와의 관련을 알려주는 내용이지만, 문서가 카로슈티문자로 쓰여졌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카로슈티문자는 기원전 3세기 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북인도 변경지역의 俗語로서, 불교와 더불어 이곳 서역남로에 유입되어 유행하였고, 서력기원후 3세기 전반에는 서역남로의 동쪽 끝 鄯善國의 통용문자가 되었다.⁷⁾ 이후 쿠산왕조가 멸망함에 따라 호탄과 선선에서도 카로슈티문자의 사용이 정지되고 아울러 ‘死文字’가 되지만, 서북인도와 서역남로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즉 ‘서력기원후 약 2세기 후반경, 쿠산왕조의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곳 서역남로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쿠산왕조는 호탄왕국의 건국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어서 2세기말 혹은 3세기초 일단의 이민단이 以東의 선선국에까지 진출하여 쿠산왕조의 새로운 식민왕국을 건설하였다.’라는 것이다.⁸⁾ 물론 실제로 쿠산왕조가 서역남로 일대를 직접 지배하였는지, 직접 통치하지 않았다면 그 영향력은 얼마만큼 막강하였는지

저항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부락을 이끌고 대사막을 넘어 호탄으로 도망하였다. 호탄에서 약탈을 일삼은 모리연의 무리는 다시 호탄에서 남으로 계빈으로 향하여 갔다. ; 『魏書』吐谷渾傳 “入于闐國 殺其王 死者數萬人 南征罽賓”, 『魏書』列傳九十 于闐國 “(魏)世祖詔高涼王那擊吐谷渾慕利延 慕利延懼 驅其部落渡流沙 那進軍急迫之 慕利延遂西入于闐 殺其王 死者甚衆”

5) 林梅村編(1988), 『沙海古卷』, 文物出版社 ; 林梅村(1991), 「却盧文時代鄯善王朝的世系研究」, 『西域研究』 1991. 1(總第1期).

6) 林梅村(1991), 앞 글, pp. 39~50.

7) 馬雍(1979), 「新疆所出傳盧文書的斷代問題 —兼論樓蘭遺址和魏晉時期的鄯善郡」, 『文史』 1979年 7輯, pp. 73~95. 祛

8) Brough교수의 주장(J.Brough, “Comments on third century Shān-Shān and the History of Buddhism”(BSOAS *XXVIII*, 3. 1965, pp.582~612) 이후 나가사와 카즈도시(長澤和俊(1972), pp.167~168, pp.184~185) Denis Sinor(*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170~171) 등이 그의 설을 따르고 있다.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기원 후 2세기말~3세기초 쿠산왕조의 한 무리가 서역남로에 들어와 호탄국과 선선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은⁹⁾ 이곳 서역에 남겨져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역북로의 경우 서역남로처럼 서북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상당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서역남로와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적었겠지만 일정한 왕래가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 서역남로와도 호탄강을 따른 직접 교통이 있었음은 서역남로 일대에서 발견된 앞서의 카로슈티문이 쿠차 및 焉耆(Kara-shar)의 방언과 구조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기타 여러가지 사료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를 통해 4~5세기경 서역남·북로 사이에는 동일한 미술양식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이미 밝혀진 바다.¹⁰⁾

2. 中國과 西域과의 관계

3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중국은 혼란기로, 이 시기 중국의 위세는 서역에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오호십육국시대 몇몇 나라들이 서역원정 이후 부분적인 규제를 가하기는 하였지만, 주로 서역남로 동쪽 끝의 鄯善國에 국한된 것이었다.

구법승들의 경우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고 3세기 전반까지 서쪽으로 향했던 중국의 승려는 한명도 없었다. 3세기 중반부터 중국 以西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인물이 주사행, 축법호 등이지만, 이들도 인도까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서역남로의 호탄, 쿠차 등지로 갔다가 돈황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었다.¹¹⁾ 그 후 4세기 말 법현부터는 상황이 바뀌어 인도로 향하는 구법승들이 급증하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 승려들 또한 그 숫자가 증가한다. 이와같은 상황은 남조 宋의 경우 50인에 달하는 구법승들을 지속적으로 인도로 보내고 있어 계속 되었지만, 북위의 경우는 다르다. 북위의 인도구법승 숫자는 불과 16인이며,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경우도 12인에 불과하여 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9) 이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林玲愛(1997), 「간다라 스와트(Swat)지방 불교조각양식 東傳再考」, 『佛敎美術研究』 第3·4合輯, pp. 143~154.

10) 林玲愛(1996),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pp. 276~286.

11) 『梁高僧傳』 제1, 4권 참조.

숫자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북위의 경우 줄곧 서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및 서역으로 구범여행을 떠나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북위와 서역의 직접적인 관계는 435년(太延元年) 2월에 焉耆, 車師가 북위에 조공하고,¹²⁾ 이 조공에 대한 답례사절로 북위 태무제가 같은 해 5월에 王恩生, 許綱을, 437년에는 董琬, 高明 등을 보냈던 것에서 시작한다.¹³⁾

그러나 이들의 조공관계는 439년 북위의 화북통일 이후 양상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북량을 통한 간접적인 북위와 서역과의 관계가 북량을 점령하고 화북을 통일한 이후 직접적인 관계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柔然의 간섭으로 북위는 기대하였던 것만큼 서역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이에 북위는 445년(太平眞君6年), 448년(太平眞君9年)에 적극적인 서역토벌을 감행하고, 드디어 서역의 연기와 선선을 북위의 직접 지배아래 두게 된다.¹⁴⁾ 이 외에 그 밖의 서역제국들 특히 호탄, 쿠차, 소륵 등의 조공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북위가 멸망할 때까지 행해졌다(표 1, 2 참조).

그 중에서 서역남로의 대국인 호탄의 경우는 444년까지는 비교적 독립적이어서 북위에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444년 북위 태무제의 토욕혼 공격으로 토욕혼이 무리를 이끌고 호탄으로 도망가 호탄을 황폐화시키자¹⁵⁾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호탄은 나라의 안정을 회복한 후 457년부터 조공을 시작하였지만, 조공은 457년 한 해만 2번 행해졌다.¹⁶⁾ 그 후 호탄은 또 다시 북위에 조공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다가 465년 헌문제(465~471)때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오는 북위의 사자 韓羊皮의 길

12) 『魏書』世祖紀上, “太延元年(435)二月庚子 蠕蠕 焉耆 車師諸國各遣使朝獻”

13) 『魏書』列傳九十 車師國, “(車師)始遣使朝獻(于魏)(魏主)詔行人王恩生 許綱等出使 恩生等 始渡流沙 爲蠕蠕所執 恩生見蠕蠕吳提 持魏節不爲之屈 後世祖切讓吳提 吳提惧 乃遣恩生等歸 許綱到敦煌 病死 朝廷壯其節 賜諡曰貞”

14) 馬國榮(1985), 「北魏與西域」, 『新疆社會科學研究』, 1985年 第3期; 板垣 明(1996), 「北魏の西域討伐をめぐるつて」, 中央大學東洋史學研究室編, 『アジア史における制度と社會』, 刀水書房, pp.103~119.

15) 『册府元龜』外臣部 朝貢 二, “北魏 太安三年 正月戊辰 粟特 于闐國各遣使朝貢(于魏)” “十二月是月 于闐夫餘等五餘國各遣使朝獻(于魏)”

16) 『册府元龜』外臣部 朝貢 二, “北魏 太安三年 正月戊辰 粟特 于 國各遣使朝貢(于魏)” “十二月是月 于 夫餘等五餘國各遣使朝獻(于魏)”

〈표 1〉 5세기 西域의 對中國 朝貢횟수(*횟수)¹⁷⁾

| | 西域南路 | | 西域北路 | | | |
|------|------|-----|------|-----|-----|------|
| | 鄯善國 | 于闐國 | 疏勒國 | 焉耆國 | 龜茲國 | |
| ~421 | | | | | | |
| 422 | * | | | | | |
| 435 | ** | | * | ** | * | |
| 437 | * | | * | * | * | |
| 439 | ** | | ** | ** | ** | |
| 447 | * | | | | | |
| 449 | | | * | | * | |
| 453 | | | * | | | |
| 454 | | | * | | | |
| 455 | | | * | | | |
| 457 | | ** | | | | |
| 462 | | | * | | | |
| 466 | | * | | | | |
| 467 | | ** | | | | |
| 468 | | * | | | | |
| 475 | | | | | * | |
| 477 | | | | | * | |
| 478 | | | | | ** | |
| 479 | | | | | * | |
| 480~ | | | | | | |
| | 7회 | 6회 | 9회 | 5회 | 10회 | =37회 |

을 막고, 북위조정에 보내는 예물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헌문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서 다시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¹⁸⁾

당시 서역의 對북위조공은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각 오아시스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북위에 대한 서역의 집중적인 조공활동은 크

17) 註 4 참조.

18) 『魏書』列傳第九十 西域, “朝廷遣使者韓洋皮使波斯 波斯王遣使獻馴象及珍物 經于闐 于闐中于王秋仁輒留之 假言慮有寇不達 羊皮言狀 顯祖怒又遣羊皮奉詔責讓之 自後每使朝獻”

〈표 2〉 6세기 西域의 對中國 朝貢횟수(*횟수)¹⁹⁾

| | 西域南路 | | 西域北路 | | | |
|------|------|-----|------|-----|-----|------|
| | 鄯善國 | 于闐國 | 疏勒國 | 焉耆國 | 龜茲國 | |
| 502 | | * | * | | | |
| 503 | | | | | * | |
| 507 | | * | ** | | | |
| 508 | | * | | | | |
| 510 | | * | | | * | |
| 512 | | * | ** | | | |
| 513 | | * | | | | |
| 514 | | * | | | | |
| 518 | | | * | | | |
| 519 | | * | * | | | |
| 522 | | | | | * | |
| 541 | | * | | | | |
| 561 | | | | | * | |
| 562~ | | * | | | | |
| | | 10회 | 7회 | | 4회 | =21회 |

계 두 시기로 나누어 진다. 435년부터 479년까지의 44년간, 그리고 502년부터 519년까지의 17년간이다. 이후로도 조공관계가 완전히 끊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 횟수는 현저히 줄어 든다. 1기의 44년간은 대략 36회, 2기 20년간은 19회로, 1기,2기 모두 호탄, 소록, 쿠차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35년부터 439년까지는 4년간 18회의 조공이 이루어지고, 그 후 바로 북위의 서역남로 선선과 서역북로 언기를 점령하게 된다.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공이 행해진 435년부터 선선을 토욕혼에게 빼앗기고, 언기가 독립하게 되는 479년까지 북위는 가장 강력하게 서역의 불교 및 불교조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453년 북불이후 새롭게 부흥한 북위의 수도에는 疏勒(Kash-gar)의 승려들이 들어와 佛鉢과 불화상을 봉납하는 등 서역승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북위조각 양식에 서역조각 양식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 註 16과 동일

III. 4~5세기 西域彫刻의 特殊性

1. 形 成

현재 남아있는 4~5세기 서역의 조각들은 좌상보다는 주로 입상이 많다. 이들 조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수성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불의주름이다. 불의의 형식은 상대적으로 통견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편단우견 형식도 적지 않다. 그 중 통견의 형식을 취한 경우 4세기 서역조각들은 통상적인 간다라불입상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도 1, 2). 물론 현재 남아있는 4세기 불입상들은 주로 하반신만을 남기고 있어 상반신과 함께 비교해 보지 않는 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체 불의주름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닳은 모습으로 조각하고 있어 대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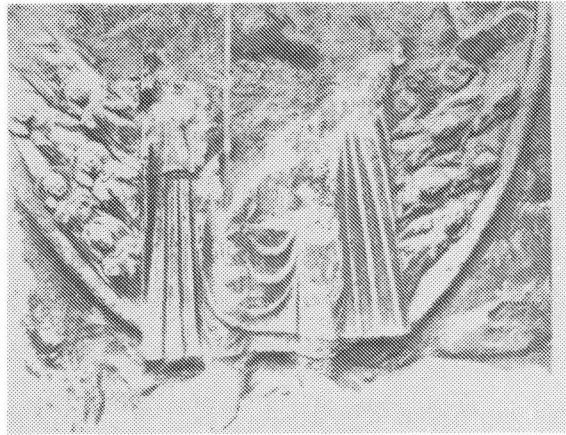
그러나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접어들면 불의가 점점 얇아짐과 동시에 옷주름형태는 서서히 형식화, 도식화되기 시작한다(도 3, 4). 그 결과 가슴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U자형의 반원을 그리며 좌우대칭의 옷주름이 새겨지게 되며, 그 주름은 하반신에까지 이어져 다리 사이로 흘러 발목에까지 내려오고 있다. 양허벅지 위에는 허리선에서 내려오는 수직주름이 무릎에 이르기까지 거의 등간격으로 주름져 있으며, 무릎 위에는 붓뚜껑으로 찍어 놓은 듯한 무릎 표현이 있고, 무릎 아래로는 작은 U자형 주름이 흘러 내리는 비사실적인 옷주름이 형성된다. 이처럼 4~5세기 서역의 조각들은 출발점은 간다라조각에 있지만, 점차 도식화되면서 서역조각 특유의 비사실적인 옷주름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며, 이와같은 주름은 이후로 줄곧 서역조각에서 애용되어 진다. 이처럼 우미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과장적으로 팽창된 신체표현과 그 위에 밀착된 불의의 주름형태는 서역조각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남는다.²⁰⁾

이와 함께 편단우견의 형식은 좀 더 독특하게 발전된다. 일반적으로 서역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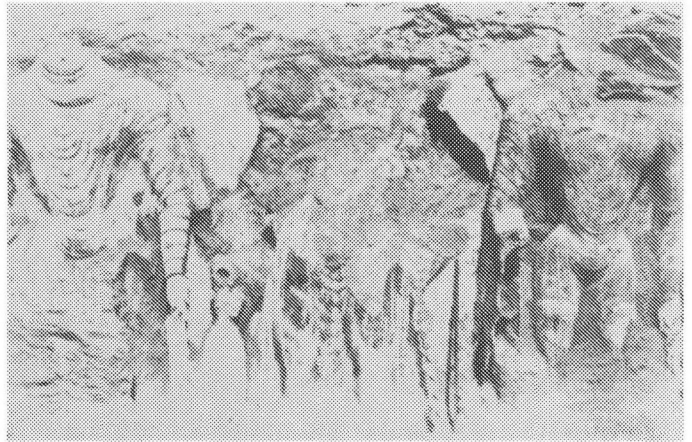
2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林玲愛(1996), 「統一新羅 佛教彫刻에 나타난 西域樣式 試論」, 『美術史學 VIII』, pp. 198~206 ; 林玲愛(1996), 앞 책, pp. 276~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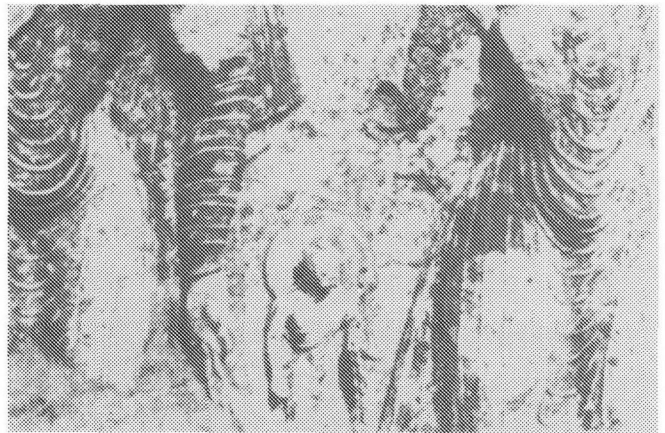
〈圖 1〉 간다라 불상, 출토지불명, H.138cm, W.46cm, 라호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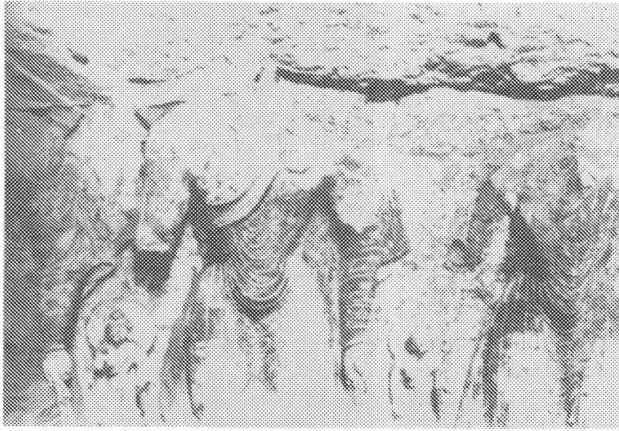
〈圖 2〉 호탄(Khotan 于闐) 라왁(Rawak)사원지 불입상



〈圖 3〉 호탄(Khotan 于闐) 라왁(Rawak)사원지 불입상



〈圖 4〉 호탄(Khotan 于闐) 라왁(Rawak)사원지 불입상



〈圖 5〉 圖 4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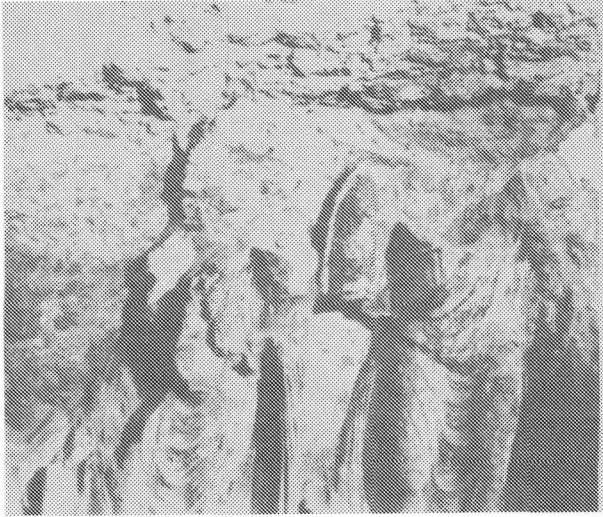
〈圖 6〉 병령사석굴 제169굴 塑造불좌상



〈圖 7〉 미란 제3사원지출토 벽화, H.75cm,
뉴델리국립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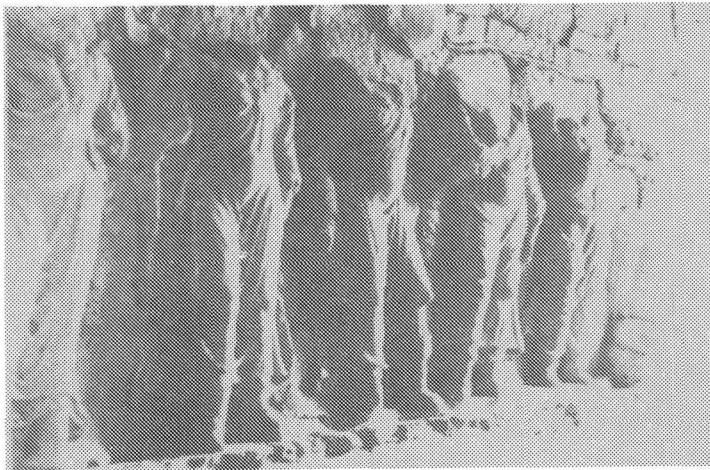
〈圖 8〉 미란(Miran)벽화, 31×1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9〉 호탄(Khotan 于闐) 라왁(Rawak)사원지
편단우견불입상



〈圖 10〉 쿠차 키질석굴 제189굴 主室前壁
오른쪽의 立佛



〈圖 11〉 탁실라(Taxila) 모라-모라두(Mohra-
Moradu)사원지 주탑 안의 塑造불입상



〈圖 12〉 불입상, 쇼르축출토,
베를린 인도미술관

에는 2가지 종류의 편단우견 형식이 함께 보이는데(도 4, 5, 9), 그 첫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편단우견 형식이고, 다른 한가지는 오른쪽 어깨만 혹은 오른쪽 어깨부터 오른쪽 팔까지를 불의가 덮고 있는 형식을 말한다.

이 중 두번째 형식, 즉 간다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른쪽 어깨가 반달모양으로 덮여져 있는 독특한 편단우견 형식에 관해 이를 ‘편단우견 형식의 중국식 변화’²¹⁾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혹은 중국 내에서 발견되는 가장 이른시기의 예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河西지역의 병령사석굴 제169호굴의 예이기 때문에(도 6)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고 있는 이같은 우견편단 형식의 시원을 양주로 보고 이를 ‘양주식 편단우견’²²⁾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독특한 편단우견 형식의 예들이 조성되었을 5세기초 당시, 史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병령사석굴을 위시한 河西지역의 석굴조각들은 끊임없이 서역남·북로조각의 영향을 받아왔다.²³⁾ 또 실제로 3~4세기경 미란(Miran)의 벽화(도 7, 8)나 4~5세기초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탄 라악(Rawak)사원지 불입상(도 9), 그리고 쿠차 키질석굴 초기벽화(도 10) 등에 이르기까지 동일형식의 불입상들이 발견되는 이상, 그 근원지가 河西지역이고 역으로 서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서역에서 이처럼 오른쪽 어깨를 살짝 가린 형식이 등장하게 된 경위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역땅에서 오른쪽 어깨를 완전히 노출시키거나, 혹은 살짝 가린 두가지 형식이 공존하다가, 이러한 형식 중 특별히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는 형식이 河西지역에서 유행을 보았고, 이어서 중국으로 전해져 북위 5세기 중엽~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불좌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서역 내에는 편단우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하체의 불의주름은 통견 형식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21) 楊泓(1963), 「試論南北朝前期佛像服飾的主要變化」, 『考古』 1963年 第6期, pp. 330~336.

22) 岡田健·石松日奈子(1993), 「中國南北朝時代の如來像着衣の研究(上)」, 『美術研究』, 第356號, pp. 3~5.

23) 『魏書』卷114 釋老志 10 第20 “涼州自張軌後 世信佛教 敦煌地接西域 道俗交得其舊式 村塢相屬 多有塔寺 太延中 涼州平 徙其國人於京邑 沙門佛事皆俱東” ; 『魏書』卷4 世祖紀 “(太延5年) 收其城內戶口二十餘萬 倉庫珍寶不可稱計 … 同十月辛酉 車駕東還 徙涼州民三萬餘家于京師”



〈圖 13〉 호탄 塑造佛頭部, H.37cm,
국립중앙박물관

이와 함께 얼굴모습 또한 주목할 만하다(도 13). 얼굴은 가름한 계란형인데, 뺨에는 살이 올라 있다. 눈, 코, 입은 약간 가운데로 몰린 듯 하지만 균형을 잃지 않고 있다. 옆으로 긴 눈은 반쯤 뜨고 있으며, 눈의 아래 위에는 눈꺼풀이 두텁게 표현되어 있다. 코는 비교적 높아 콧등이 강조되며, 양쪽의 콧방울이 선명하다. 또 양쪽 입가를 오목하게 하여 살짝 웃고 있지만 긴장감은 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독특한 불의주름과 긴장감이 엮도는 얼굴모습이 형성되고 유행하던 시기에 간다라후기의 스테코조각양식이 유

입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도 11, 12). 즉 기존 불의주름의 기본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름자체가 다소 복잡해 진다든지, 불입상의 포즈도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직립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포즈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불두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하여 채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눈은 가늘게 뜨거나 혹은 반쯤 뜬 상태로, 그 안에 치켜 뜬 눈동자를 표현하는 독특한 얼굴이 만들어진다(도 14, 15). 이러한 얼굴은 후기간다라 스테코조각과 동일한 특징이지만, 서역의 예는 조각의 깊이가 얇고, 눈, 코, 입이 중앙으로 몰리는 특징이 더해지면서 서역조각 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된다(도 16). 이처럼 깊이가 얇고 채색위주로 된 강한 인상의 얼굴모습은 대략 5세기 경부터 시작되어 7~8세기까지 이어져 꽤 오랜동안 이곳 서역에서 유행되며 또 하나의 특수성으로 남는다. 이처럼 오랜기간 지속된 이유는 서역조각의 주재료인 흙의 특성상 깊이감있는 조각을 만들기 보다는 채색으로 깊이감을 주는 것이 더욱 용이하였을 것이고, 또 재료 자체가 채색을 입히기에 적당한 것이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역조각의 특징들은 통상적인 간다라조각 및 후기간다라의



〈圖 14〉 스테코 佛頭, 4~5세기, H.18cm, 대영박물관 소장.



〈圖 15〉 호탄 라와(Rawak)사원지 출토 塑造佛頭, 4~5세기, H.12cm, 흙, 대영박물관 소장.



〈圖 16〉 키질출토 보살두, H.27cm, 베를린인도미술관

스테코조각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변화를 거치며 형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4~5세기경 이미 이들 조각과는 구별됨을 보았다. 이같은 특징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역남·북로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2. 傳播

서역에서 북위로 집중적인 조공이 이루어지는 435년부터 439년까지, 그리고 북위가 서역의 선선과 언기를 점령하게 되는 445년부터 479년까지, 즉 대략 5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서역과 북위가 정치

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서역조각의 양상은 어떠하였으며, 당시 북위조각은 또 어떠하였을까.

5세기 북위의 불상들은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입상은 통견 형식을, 좌상은 편단우견 형식의 불의를 입고 있다. 통견 형식의 입상은 유명한 太平眞君4年(443)명 불입상(도 17)을 위시하여 太和年間(477~499)의 불입상(도 18,19)들에 이르기까지, 점차 불의주름의 형식화가 진전되기는 하지만 기본형은 동일하다. 즉 가슴 위에 펼쳐진 좌우대칭의 U자형 주름이 흘러내리며 거의 발목에까지 이르고 있고, 양 허벅지 위의 수직주름은 무릎까지 이어진다. 이와같은 불의주름은 4~5세기 서역에서 이미 유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며, 신체의 양감에 관심이 두드러져 팽창된 듯한 인체표현과 밀착된 얇은 옷주름 역시 서역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

좌상의 경우 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편단우견 형식의 불의를 입고 있는데, 모두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살짝 가린 편단우견 형식으로 입혀져 있다(도 21, 22). 이러한 형식은 물론 河西지역에서 유행을 보았던 것이지만, 그 근원은 역시 서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太和元年(477)명 불좌상의 내의 위에 선각된 격자무늬와 그 내부의 점 표현은 서역조각에서 즐겨 애용하던 모티프이다(도 23, 24). 뿐만 아니라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도 무릎 이하로 U자형 주름이 흐르고 있어, 좌상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입상과 동일한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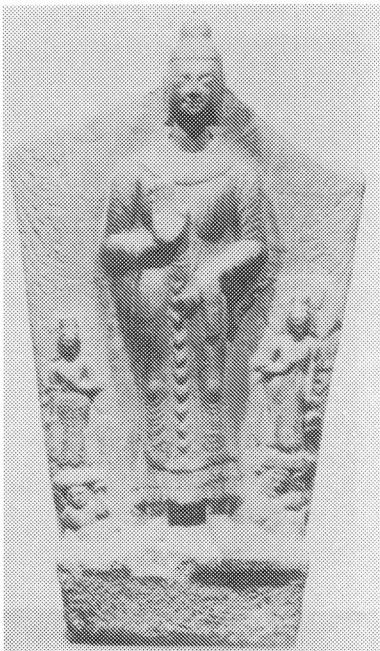
5세기 북위조각의 불두는 대체로 육계가 크고 높으며, 이마는 그다지 넓지 않다.(도 25, 26) 둥근 얼굴에 뺨에는 살이 있으며, 눈은 아래 위의 눈꺼풀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콧마루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으며, 코에서 눈썹으로 이어지는 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을 주지만 턱을 당기고, 입가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에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역 불두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도 27) 불의주름과 함께 5세기 북위조각이 강력한 서역조각의 영향권 아래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물론 5세기 북위의 조각들이 서역의 불두들에 비해 얼굴의 양감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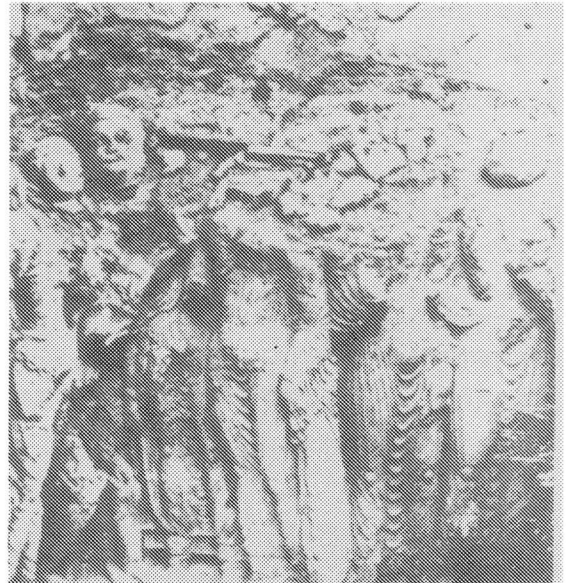
〈圖 17〉 太平眞君4年(443)銘 청동불입상, H.53.5cm, 교토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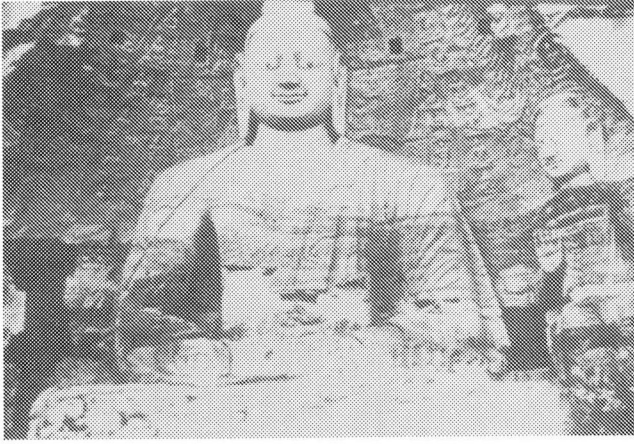
〈圖 18〉 太和19年(495)銘 석불입상, 산서성출토, H.213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圖 19〉 太和23年(500)銘 석불입상, 섬서성출토, H.94cm, 클리블랜드미술관



〈圖 20〉 카라-샤르 밉오이(Kara-shar Mingoi) 北寺址 중 제12사지 회랑부조 소조불입상



〈圖 21〉 雲岡石窟 제20굴 본존좌상



〈圖 22〉 太和元年(477)銘 金銅佛坐像,
總高 40cm, 像高 15.3cm



〈圖 23〉 圖 22의 세부



〈圖 24〉 木造불입상, H.18.6cm, 키질석굴
제76굴출토, 베를린인도미술관



〈圖 25〉 圖 17의 얼굴부분



〈圖 26〉 圖 19의 얼굴부분



(圖 27) 圖 13의 정면

다. 북위조각의 이같은 특징은 443년 太平眞君4年銘 불입상부터 499년의 太和22年銘 불입상에 이르기까지 약 50여년간 큰 차이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94년 낙양천도 이후에도 산서성과 섬서성 일대에서는 여전히 서역적 특징이 강하게 엿보이는 조각들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으로 서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5세기 중반~후반의 북위조각은 서역조각의 재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같은 특징들은 가름한 얼굴에 순박한 고졸미소를 띠고, 두터운 불의를 걸치고 있는 6세기 전반기의 불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서역에서는 이와같은 특수성을 지닌 조각들이 후기간다라 스테코조각 양식의 유입이후 기본형을 그대로 고수한 채,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7~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이곳 중국에서는 5세기 전반의 전달 이후 5세기 후반이 되면 형식화되기 시작하다가, 6세기초의 변화에 곧바로 흡수되어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 과정 중에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서역의 조각 중 후기간다라 스테코의 영향아래 조성된 채색위주의 화려한 불두의 모습은 서역 내에서 5세기에 이미 유행하기 시작하여 기왕의 불두와 공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위 5세기 불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서역조각의 주재료인 흙과 중국조각의 금동, 돌 등 재료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눈을 치켜뜨고 있는 강인한 모습이 이들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IV. ‘西域彫刻과 東西美術交流’의 意義

과거 ‘서역’이라는 지역은 단지 서쪽의 미술이 동쪽으로, 동쪽의 미술이 서쪽으로 옮겨지는데 필요한 ‘터널’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만족해 왔다. 그 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 서역남·북로에 흩어져 있는 각 오아시스 국가들이 각각 저마다 독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서역남로의 호탄(Khotan 于闐)은 호탄대로 서역북로의 쿠차(Kucha 龜茲)는 쿠차대로 각각 특유의 미술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경향을 완전

히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각 유적지 마다의 특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좀 더 통시적인 입장에서 서역전체를 보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서 이처럼 유적지마다의 특징에 집착하지 않고, 특정 시기를 선정하여 그 시기에 해당하는 남로와 북로의 유물을 함께 놓고 보면 서로 공통양식을 갖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²⁴⁾

4~5세기 서역남·북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바로 독특한 불의주름과 함께 얼굴모습인데, 물론 불교조각에서의 옷주름 처리가 얼마만큼 엄격한 시대성을 지니는지에 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옷주름의 기본형은 같다고 하더라도 시대마다 佛衣 속 신체에 보이는 관심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이상, 이를 함께 놓고 볼 때 그 한계를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어쨌든 이러한 서역조각의 특수성은 간다라와의 밀접한 관련 아래 그들의 조각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간다라조각 양식이 서역에 유입된 이후, 이곳 서역땅에서 일종의 지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역만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된다.²⁵⁾ 결국 이러한 특수성은 서역과 북위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5세기 북위조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5세기 북위조각들은 서역조각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5세기 북위의 조각들은 간다라조각과의 관련보다는 서역조각과 훨씬 강한 친연성을 갖고 있다. 이들 5세기 북위조각에 나타난 ‘서방적’인 표현들은 결국 서역을 통한 간다라양식이 아닌, 이미 서역화된 서역의 것이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동서미술교류 상에 있어서 5세기까지의 불교조각은 줄곧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미술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처럼 그 흐름이 일방적이어도 무방하다.

24) 林玲愛(1996), 앞 책, pp. 276~286.

25) 林玲愛(1997), 「간다라 스와트(Swat)지방 불교조각양식 東傳 再考」, pp. 143~154

V. 맺는 말

이 글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서역조각의 특수성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동서미술교류사 위에서 불교조각이라고 하는 테마는 어떠한 양상으로 인접지역으로 흡수되고 변화되었는지, 나아가 결국은 단지 서역을 동서문화교류 상의 여과지 정도로 파악하여 왔던 태도를 지양하고, 서역조각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단순히 ‘서방적’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5세기 북위조각들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서방’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결국 간다라와 중국사이에 가로놓인 서역의 역할은 특별한 것이었고, 특히 서역조각이 5세기 북위조각에 미친 영향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필자가 도출해 낸 결론은 불의주름이나 얼굴모습 등과 같은 몇가지 특징 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획일화한 것일 수 있다. 또 서역미술 내에 아직도 많은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불교조각이라고 하는 테마는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는 도상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여지는 불의주름 형식이나 얼굴모습 등은 흐름의 추이를 간과할 수 있는 적당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